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51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음 6월 29일) 제210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구체화 · 실천방안 마련

도, 농업·SOC·금융·창업·제조업·문화 등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분야별로 릴레이 세미나

전북도는 8월 한달 동안 혁신성장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수립중인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의 구
체화와 실천방안 마련에 집중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분야별 출연기
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 혁신성
장 미래비전 기획단을 지난해 12월에
구성, Post 새만금을 대비한 대형 국
책사업을 발굴, 산업 분야별 향후 30
년을 내다보는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
기 위해 18개 핵심프로젝트와 190개
실천과제를 포함하는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을 수립하여 실천방안
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8월 한달 동안 분야별로 총 6
회의의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하여 발굴
된 실천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2020
년 국가예산 대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담금질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8월 10일 진행되는 농업분야 릴레이
세미나는 오전 11시부터 도청 중회의
실에서 김동수 전라북도생물산업
진흥원장의 농업분야 핵심프로젝트
발표와 종자, 첨단 농기자재, 스마
트 팜, 식품, 미생물 등 5개 핵심
프로젝트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다.

특히, 농업분야는 8월초에 선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비롯
해 식품, 종자, 첨단농업 등 미래농업
의 대표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박
정관 농촌진흥청 연구관, 안경구 종
자산업지흥센터장, 정병엽 첨단방사
선연구소장 등 관련 전문가 10여명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아울러, SOC분야와 금융, 창업분야
는 전북연구원이 주관하여 전북창조
경제혁신센터와 함께 8월 20일과 21
일에, 제조업 분야는 전북테크노파
크가 주관하여 자동차융합기술원, 탄소
융합기술원, ECO융합섬유연구원 등과
함께 8월 21일과 23일에, 문화관광분
야는 8월 30일에 전라북도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이 주관하여 전북연구원
등과 함께 분야별 핵심프로젝트를 구
체화하고 실천방안을 논의할 계획이
다.

김철모 기획관은 "전북 혁신성장 미
래비전 2050은 외부 용역 발주가 아
닌 전북연구원을 비롯한 분야별 출연
기관의 자체 역량을 발휘하여 전라북
도의 중장기 미래 먹거리사업 발굴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분야별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을 더욱 구체화하고,
2020년 국가예산 대상사업으로 실행
하는 등 실천방안 마련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무궁화를 찾은 벌 최근 전주 덕진구 반월동에 위치한 한국도로교통공사수목원에 활짝 핀 무궁화를 찾은 벌들이 꿀을 빨며 힘차게 날갯짓을 하고 있다.

새만금산단 내 장기임대용지 추가 확보 나서

전북도, 내년 1030억 투자 지역경제 유발효과 큰 투자유치 추진... "지속적인 국비 확보 필요"

전북도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위기상황 해소 대책 일환으
로 새만금산업단지 내 대규모 장기임
대용지를 추가 확보 중에 있다고 밝
혔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2019년까지 총
1,030억원 투자를 통해 새만금 산업용
지 100만㎡(약 30.3만평)를 새만금청,
전북도, 군산시가 공동 매입 후 지역
경제 유발효과, 연관산업 육성,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200만㎡(약
60.6만평)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의 연간 임
대료는 재산가액의 최저 1%이며, 임

대기간이 최장 100년까지 가능하여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초기투자 비용
부담 등이 해소되어 타 지역과 비교
하여 새만금 산단의 투자가 가능하
는 것이다.

1단계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
보(100만㎡, 30.3만평) 사업예산 중
일부인 33만㎡(10만평), 국비 272억원
을 2018년도 정부 추경에서 확보하였
으며, 투자관심기업의 증가로 2019년
67만㎡(20.3만평) 추가 매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
한 상태이다.

임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새만
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도

임대용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새특별
개정을 완료(2017.6.3.), 국내기업 임
대료를 5%에서 1%로 인하하는 법안
을 발의(2017. 12월) 하는 등 정치권
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
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많은 기업에
서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입주 희망을
문의해 오고 있어 추가 20만평 확보
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
성사업으로 지역 산업구조 다변화
와 새로운 산업 육성 등 최근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경제 활
성화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감찰시스템 개편 권고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는 9일 법무·감찰 조직 내 성적 침해
행위 사전 처리가 미흡하다며 감찰시
스템 등을 전면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8일부터 6월21일
까지 위원회 소속 3명을 투입해 성희
롱 등 고충사건 기록 39건, 감찰·징
계사건 기록 110건 등 모두 149건을
검토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위원회
가 내놓은 여섯 번째 권고안이다.

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감사 결과 성희롱, 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 사건은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부분 감찰 사건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주로 처리됐던
감찰시스템도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
지 못하고 처리체계가 부실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감사 기간 성희롱 등 고충
사건은 39건만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
다. 감찰·징계 사건의 경우에도 피
해자에게 신뢰를 줄 만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오는 13일자로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뉴시스

예술단체 학생 등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로

'2018 군산야행' 내일 개막

근대문화유산 재현 11개 부스 설치 볼거리 강화

군산시의 '야행(夜行)'이 한여름
밤의 아름다운 문화유산 따라 볼거
리·즐길 거리가 가득한 시민주도형
행사로 열린다. <관련기사 12면>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월명동 일
원에서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개최되는 '군산 야행'은 테마별 프
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군산야행의 총 70여개 프
로그램 중 32개 프로그램에 지역에
술단체, 동호회, 학생, 자원봉사자
등 710여명의 시민이 함께해 시민
참여형 행사로 추진된다.

또한 근대역사박물관부터 동국사
에 이르는 2km의 구간엔 LED 조명
등을 이용한 '빛의 거리'를 조성하
고, 근대문화유산을 재현한 11개의
부스를 설치해 볼거리를 강화했다.

총 8개 테마별로 전시·공연·체
/군산=김정훈 기자

합프로그램을 운영해 한여름 밤
군산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선사할 계획
이다.

강임준 시장은 "지역 경기 침체
와 무더위로 지친 시민들과 휴가
철을 맞아 군산을 방문한 관광객
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번 행
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군산 야행이 문화재 야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
성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구상해 시민주도형 문화 콘텐츠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 내달부터 조선시대 부성 복원 발굴조사

전주시가 일제 강점기에 철거된 조
선시대 전주부성(全州府城)을 복원하
기 위한 발굴조사에 나선다.

전주부성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
음으로 향후 전주부성 복원을 통해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
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전주부
성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전주
부성 옛 4대문 주변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시굴 및 정밀발굴조사에 나

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고려말 전라감사 최유경이 처음 쌓
은 것으로 알려진 전주부성은 1734년
(영조 10년) 전라감사 조현명에 의해
대대적으로 신축했으나 일제강점기에
폐쇄돼 일부 흔적만 남았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고지
도 및 문헌자료에 의존해 추정해온
조선시대 전주부성의 문지와 성곽의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 축조방법 등
을 밝혀내 전주부성을 복원하고 정비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최대한 전주부성의 흔적을 찾
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굴조사를 실시
한 후 유적이 확인된 곳은 정밀발굴
조사를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하는 작
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고지도 및 각종 문
헌자료들을 수집·분석한 후 문지
로 추정되는 동문사거리와 오거리
광장, 서문파출소 등 3곳과 성곽 라
인 및 성곽시설을 확인하기 위한 54
곳의 트랜치 조사를 통해 전주부성
과 관련된 시설물의 잔존양상을 조
사기로 했다. /송홍철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진짜! 어디서나!
시민에게 힘을 주는 김제시의회!

김제 시의회
GIMJE CITY COUNCIL